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지역 정체성 반영 특성 고찰

지역자원 유형과 공공디자인 표현 방식의 연계를 중심으로

Regional Identity Reflection in Public Design Promotion Plans and Guidelines of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Focusing on the Linkage between Regional Resource Types and Public Design Expression Methods

주 저 자 : 현호영 (Hyun, Ho Young)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hhoyoung@ut.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3.327>

접수일 2026. 08. 20. / 심사완료일 2026. 08. 26. / 게재확정일 2026. 09. 07. / 게재일 2026. 09. 30.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regional identity is reflected in the public design promotion plans of 15 metropolitan-level local governments and the guidelines of 10 regions. The results show that regional differences arise mainly from the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local resources and their connection to implementation projects. The guidelines employ direct visual expression through colors, brands, and graphics, and contextual expression through landscape, materials, and placement. Public facilities mainly reflect place and physical context, while public visual media emphasize visual identification. Regional identity is therefore shaped through the selection and design translation of local resources and the control of their expression.

Keyword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guideline(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Regional identity(지역 정체성), Regional resources(지역자원)

요약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디자인 기준으로 연결하는 주요 자료이다. 본 연구는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세부 디자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자원과 공식 시각 자산의 활용 방식 및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의 표현 특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생활·공동체는 대부분의 진흥계획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차이는 자원의 포함 여부보다 핵심 자원의 선택과 조합, 실행 사업과의 연결 방식에서 형성되었다. 지역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색·브랜드·그래픽을 활용한 직접적 표현, 지형·경관·재료를 반영한 맥락적 표현, 문화·생활 조건을 실친 지침으로 전환한 방식, 대상 지역별 판단 기준을 적용한 방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장소·배치·재료를 통한 맥락적 표현이, 공공시각매체는 색채·서체·그래픽을 통한 식별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은 상징 요소의 반복보다 지역자원의 선택, 디자인 요소로의 전환, 표현 범위와 강도의 조절을 통해 구체화됨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 2-2. 지역 정체성과 지역자원
- 2-3. 지역자원의 공공디자인 표현
- 2-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3.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지역 정체성 반영 특성

- 3-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 3-2. 지역자원의 공통성과 차별적 강조
- 3-3. 지역별 지역자원 활용 특성
- 3-4. 지역 정체성 반영의 종합적 특성

4.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지역 정체성 표현 특성

- 4-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 4-2. 지역별 디자인 표현 특성
- 4-3.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표현 차이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한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의 제고를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¹⁾ 이에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공공디자인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일상적인 공공 환경에 적용되는 주요 디자인 대상이다. 공공시설물은 가로와 공공공간의 물리적 이미지를 형성하며, 형태·재료·색채와 관리 방식은 공공 환경의 심미성과 통합성에 영향을 미친다.²⁾ 공공시각매체는 정보 전달과 함께 지역 및 장소를 식별하는 시각적 환경을 구성한다.

지방정부는 공공 환경의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진흥계획과 함께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및 세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도시의 통합 이미지와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는 실행 기준으로 보고, 지역의 경관과 장소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³⁾

본 연구에서 지역 정체성은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게 하는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특성이 축적되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장소 및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과 활동, 의미, 자연·사회문화적 환경 및 공공공간 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제시된다.⁴⁾ 지역자원 분류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생활·공동체를 주요 지역자원으로 설정하고, 심벌·도시 브랜드·대표색·전용 서체 등은 지역자원을 시각적으로 해석한 ‘공식 시각 자산’으로 구분하였다.⁵⁾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자료는 별도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거나 진흥계획 내부에 분야별 지침을 포함하는 등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르며, 부산과 대구 등의 사례에서도 장소 특화 기준과 환경색채 등 지역별 특성이 확인된다.⁶⁾ 기존 광역자치체 가이드라인 비교연구는 지역 정체성을 주요 지향점으로 제시하였으나, 지역자원의 선택과 디자인 요소로의 전환 및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관계에 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⁷⁾

이에 본 연구는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화학회지, Vol.17, No.4, 2011, pp.622-634.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1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www.law.go.kr.
- 2)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정책과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1, No.1, 2012, pp.133-147.
- 3)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및 특성 비교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4, 2010, pp.532-542; 김정근·김아람,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23, No.5, 2010, pp.149-158; 최성호, ‘도시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

- 4)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p.47; Deniz Oktay, ‘Reevaluating urban identity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the case of Samsun, Turkey’,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 Urban Design and Planning, Vol.170, No.5, 2017, pp.189-204.
- 5) 김미영·이호승, ‘공공디자인에서의 지역정체성구축을 위한 지역자원분류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5, No.3, 2016, pp.63-72; 노주현·임현혁, ‘한국 6대 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에 함의된 조형 요소와 정체성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1, No.5, 2013, pp.203-214.
- 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목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9, 목차.
- 7) 이종성·박재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지자체별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 연구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Vol.25, No.1, 2024, pp.287-298.

진흥계획에서 지역자원의 선택·강조·조합과 실행 사업의 관계를 비교하고,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표현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진흥계획의 정책 방향에서 구체적인 디자인 기준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밝히고, 광역 공공디자인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공공 환경의 통합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새롭게 설치되었으며, 중전·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계획은 서로 다른 행정 영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자료수집 기준일 현재 통합특별시 단위의 확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확보할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⁸⁾

공동 분석 자료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각 광역자치단체의 최신 확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설정하였다.⁹⁾ 서울특별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의 「도시디자인 진흥계획」도 비전·목표·추진 전략 및 실행 사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자료로 포함하였다.

가이드라인 분석에는 별도로 발간된 종합 가이드라인과 진흥계획 내부에 독립된 장으로 수록된 세부 지침을 포함하였다. 이에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충북·대전·제주의 10개 지역을 공공시설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공시각매체의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8개 지역을 별도로 비교하였다. 강원과 충남은 진흥계획 안에 가이드라인 내용이 확인되지만 공개된 자료에서는 상세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4장의 세부 비교에서 제외하였다.¹⁰⁾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내용분석은 문서의 명시적 내용을 공통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사례 간 관계를 비교하는 데 활용하였다.¹¹⁾ 코딩은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에 앞서 [표 3]과 [표 4]의 범주 정의와 판정 조건을 코딩 기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판정의 근거 문서와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1차 코딩 후 시차를 두고 전체 자료를 재코딩하여 판정의 일관성을 점검하였고, 판정이 달라진 항목은 기준 보완 후 재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진흥계획에서는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생활·공동체와 공식 시각 자산을 분석하고, 핵심 자원의 선택과 조합, 비전·전략 실행 사업과의 연결을 비교하였다. 단순한 단어의 출현 빈도는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소·배치, 형태·구조, 재료·마감, 색채, 그래픽·서체·픽토그램 및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장소 정체성을 물리적·시각적 디자인 요소와 연결한 선행연구와 실제 가이드라인의 구성 방식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¹²⁾ 지역자원과 디자인 요소의 직접적·맥락적 연결을 확인하고, 상징·색채·패턴 등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도 표현 범위의 조절 방식으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별 비교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디자인 영역의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의 부재로 판단하지 않고 유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범위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계획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한정하며, 실제 시설물의 적용 여부와 시공·유지관리 상태 및 이용자의 지역 정체성 인식은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의 범위와 분석 방법은 [표 1]과 같다.

장 유형별 가이드라인 목차. 본 연구에서 확보한 공개본은 해당 가이드라인 장의 시작 부분에서 종료되어 세부 지침 전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738호, 2026.6.2., 타법개정], 제7조·부칙 제1조 및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www.law.go.kr.

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www.law.go.kr.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5, PART 5 가이드라인 목차;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19, 제5

11) Marilyn Domas White and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55, No.1, 2006, pp.22-45; Steve Stemler,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Vol.7, No.17, 2001.

12) 전미화·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0, No.4, 2011, pp.145-154.

[표 1]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

항목	내용
연구 대상	15개 광역자치단체(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
진흥계획 분석 자료	각 광역자치단체의 최신 확정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또는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별도 종합 가이드라인 및 진흥계획 내 독립된 가이드라인·지침의 세부 본문
가이드라인 분석 지역	공공시설물 10개 지역, 공공시각매체 8개 지역
진흥계획 분석 내용	지역자원의 선택·강조·조합, 비전·전략·사업과의 관계, 공식 시각 자산
가이드라인 분석 내용	장소배치, 형태·구조, 재료·마감, 색채, 그래픽·서체·픽토그램, 정보체계, 표현 조절
종합 비교	지역별 표현 특성,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차이, 진흥계획-가이드라인 연계 양상
분석 방법	문헌조사, 내용분석, 지역 간 비교 분석

2. 이론적 배경

2-1.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

2-1-1.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역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한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의 제고를 법률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사·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¹³⁾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공공디자인 여건을 진단하고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사업 및 관리 체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법률이 ‘지역 여건의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흥계획은 해당 지방정부가 무엇을 지역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문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다루려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차 자료가 된다.

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법률에서 광역계획과 동일한 형식과 수립 주기에 따라 일괄 규정한 문서는 아니다. 지방정부는 조례, 진흥계획 및 관련 정책에

따라 별도의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거나 진흥계획 안에 분야별 지침을 포함하며, 표준디자인·체크리스트·심의 기준 등과 결합하여 구성되기도 한다. 이에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서로 연관되지만 그 기능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표 2]).

[표 2]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기능 비교

구분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요 기능	중장기 비전·목표·전략 및 사업 방향 설정	대상별 디자인 및 적용 기준 제시
주요 내용	현황과 여건, 비전, 추진 전략, 실행 사업, 추진 체계	형태, 배치, 재료, 색채, 그래픽, 정보, 권장·지양 기준
공간적 범위	광역자치단체 전체 및 시·군·구와의 관계	공공공간, 시설물, 시각매체 등 세부 대상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	지역자원을 선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선택된 지역성을 디자인 요소와 적용 기준으로 표현
본 연구에서의 역할	지역자원의 선택·강조·조합 및 사업화 분석	디자인 표현과 표현 범위, 계획과의 연계 분석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관계는 상위 방향과 세부 기준의 단순한 일대일 대응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진흥계획에서 여러 지역자원을 제시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물과 시각매체의 기능에 적합한 일부 자원만 선택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을 고정된 형태나 색채로 규정하지 않고 대상 지역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자료의 연계는 지역자원이 그 성격에 적합한 디자인 기준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다.

2-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적용 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가이드라인의 영역과 분류 체계, 세부 규정 및 실행 수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별 가이드라인의 비교에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각매체 등 대분류와 세부 대상의 명칭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통합 이미지, 경관 권역 및 가로 유형을 반영한 목표 설정과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⁴⁾

1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1조·제2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18.), www.law.go.kr.

14)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및 특성

가이드라인의 기술 방식은 기본 방향과 일반원칙, 권장·지양 사항, 수치·규격·색채표·도면 등의 세부 기준, 체크리스트와 심의·인증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방향은 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공통적 가치를 제시하고, 권장·지양 사항은 형태·재료·색채 및 배치에서 적용하거나 피해야 할 내용을 설명한다. 수치와 도면, 색채값은 적용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며, 체크리스트와 심의·인증은 사업기획과 설계, 승인 및 관리 과정에서 기준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이 상세하다는 사실이 지역 정체성의 반영 수준이나 실제 디자인 품질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자원과 관계없이 수치와 규격만 상세하게 제시된 지침은 일반적인 품질관리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간결한 원칙도 대상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고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면 장소별 특성을 수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지역 정체성 반영은 기준의 수나 상세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지역자원과 디자인 요소, 적용 대상 및 관리 수단이 연결되는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광역자치단체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역적 통합성과 기초자치단체의 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시설물과 정보체계를 일괄 적용하면 공공 환경의 기본 품질과 식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군·구와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자연·환경·역사·문화·산업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광역 수준에서는 안전·접근성·정보 위계와 같은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형태·재료·색채·콘텐츠는 하위 지역의 장소 자원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2-2. 지역 정체성과 지역자원

2-2-1. 지역 정체성의 개념

장소 정체성은 특정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성격을 의미한다. Relph는 장소의 정체성을 물리적 환경,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장소에 부여되는 의미의 상호 관계로 설명하였다. 세 요소는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 서로 결합하여 장소의 고유한 경험과 인식을 형성한다.¹⁵⁾

도시 정체성에 관한 국제 연구에서도 정체성은 건축물의 외형이나 시각적 장식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고 본다.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식별 가능한 구역, 공공공간 및 일부 랜드마크가 도시 정체성에 기여하며, 도시의 성격은 사회·경제·정치적 변화 속에서 시간에 따라 형성되고 재구성된다. 또한 도시 정체성 관련 문헌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검토에서는 도시 정체성, 지역 정체성, 장소 정체성, 문화유산과 공공공간 등이 서로 연결된 개념군으로 나타났으며, 정체성의 유형과 분류에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소 정체성이 특정 장소와 이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면, 지역 정체성은 행정구역이나 생활권과 같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공유되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 산업과 생활양식의 특성을 다룬다. 도시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 가운데 도시적 공간과 사회문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비교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 정체성’을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가 설치되는 구체적인 대상지의 해석에는 장소 정체성의 논의를 함께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정체성을 특정 지역에 축적된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특성이 선택되고 결합되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성격으로 인식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지역 정체성을 고정된 이미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어떠한 자원을 대표적으로 선택하고 공공디자인의 방향과 사업에 연결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비교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4, 2010, pp.532-542; 김정근·김아람,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23, No.5, 2010, pp.149-158; 최성호, ‘도시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 No.4, 2011, pp.622-634; 이종성·박재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지자체별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 연구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Vol.25, No.1, 2024, pp.287-298.

15)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p.47; Deniz Oktay, ‘Reevaluating urban identity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the case of Samsun, Turkey’,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 Urban Design and Planning, Vol.170, No.5, 2017, pp.189-204; Zaker Alesaily and Ahmed Albiaily, ‘Urban identity: A bibliometric review, 1969–2024’, Alexandria Engineering Journal, Vol.128, 2025, pp.724-746.

2-2-2. 지역자원 유형과 공식 시각 자산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자원 분류 연구는 지역자원을 역사, 예술·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의 다섯 대분류로 제시하였다. 해당 분류는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표 자원의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정체성을 공공디자인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¹⁶⁾

분석 범주는 이 분류를 바탕으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구성과 실제 자료에 맞게 조정하였다. 역사와 예술·문화는 계획 자료에서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사·문화’로 통합하였다. 생활영역은 주민의 일상과 인구구조뿐 아니라 안전, 건강, 참여, 포용 및 공동체 관계를 포함하므로 ‘생활·공동체’로 확장하였다(표 3).

공식 시각 자산은 네 가지 원천적 지역자원과 구별되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도시 브랜드와 심벌, 대표색 및 전용 서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또는 미래상을 선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도시 브랜드 연구에서도 자연환경과 주민에 대한 관념적 이미지가 브랜드의 주요 표현 소재로 사용되었지만, 국내 도시 브랜드의 조형적 차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공식 시각 자산의 존재나 사용 빈도만으로 지역 정체성의 반영을 판단하기 어렵다.

공식 시각 자산은 도출 근거가 된 지역자원,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및 강조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색과 로고의 반복 적용과 주변 경관 정보 전달을 고려한 제한적 적용은 서로 다른 정체성 표현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지역 정체성 관련 자원의 분석 범주

구분	주요 내용	진흥계획상 확인 대상
역사·문화	문화유산, 역사적 장소·시간·인물, 전통문화, 예술, 축제, 지역 서사	현황 진단, 역사 문화 사업, 특화 거리, 해설·관광 콘텐츠

16) 김미영·이호승, ‘공공디자인에서의 지역정체성구축을 위한 지역자원분류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5, No.3, 2016, pp.63-72; 노주현·임현혁, ‘한국 6대 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에 함의된 조형요소와 정체성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1, No.5, 2013, pp.203-214.

자연·환경	지형·산림·하천·해안·섬·생태계·자연경관·기후	권역·구분·경관·생태·사업·수변·산사·해안 관련 사업
산업·경제	제조업, 산업단지, 농업, 관광, 상권, 첨단산업, 지역 생산물	산업·환경 개선, 산업·유산·재생, 상권·관광 활성화
생활·공동체	인구·생활양식, 안전, 건강, 고령화, 포용, 주민 참여, 공동체	생활·환경, 안전·건강 사업, 커뮤니티 공간, 참여 체계
공식 시각 자산	심벌, 도시 브랜드, 대표색, 문양, 전용 서체, 캐릭터, 상징 아이콘	시각 체계 개발·적용, 표준 디자인, 도시 브랜드 사업

네 가지 지역자원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주이다. 이에 지역 간 차이는 특정 유형의 포함 여부보다 핵심 자원의 선택과 강조, 다른 자원과의 결합, 실행 사업 및 디자인 기준으로서의 전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자원 목록의 비교를 넘어 지역 정체성이 계획과 가이드라인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2-3. 지역자원의 공공디자인 표현

2-3-1. 지역자원과 디자인 표현 요소

지역자원이 진흥계획에 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 공공디자인에 구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지역자원이 공간과 시설물, 시각 정보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소 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활동, 의미 및 시공간적 맥락을 조사하고 이를 형태, 재료, 색채, 조명, 조망, 서체 및 식재 등의 계획 요소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¹⁷⁾

광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자원이 모든 디자인 요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환경·경관·색채에 연결될 수 있다. 역사·문화·유산은 특정 장소의 공간구성, 해설 콘텐츠, 그래픽과 서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산업·경제·자원·안전·산업·공간·개선·및·산업·유산·재생 등의 기능과 프로그램으로 전

17) 전미화·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0, No.4, 2011, pp.145-154; 송영민, ‘지역정체성 맥락의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연구 - 충북광역도시권의 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3, No.5, 2014, pp.104-111.

환될 수 있다. 생활·공동체는 이용 행태, 안전, 접근성, 건강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의 기능적 기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표현을 여섯 범주와 표현 조절 기준으로 구분하였다(표 4).

[표 4] 지역 정체성의 디자인 표현 범주

표현 범주	주요 분석 내용	대표적 적용
장소배치	지형·권역·경관·생활권에 따른 설치 위치와 배치	수변·산지·역사 거리·생활권별 차등 적용
형태구조	지역 모티브, 추상화, 시설물 형태, 통합 구조	상징 형태, 간결한 추상화, 시설물 통합
재료·마감	지역 재료, 질감, 자연소재, 내구성과 유지관리	석재·목재·지역 소재, 재료 고유색
색채	대표색, 경관 색채, 주요 보조·강조색, 적용 비율	지역색 팔레트, 권역별 색채, 강조색 면적
그래픽·서체·픽토그램	브랜드, 문양, 전용 서체, 캐릭터, 상징 아이콘	지역 서사 그래픽, 도시서체, 표준 픽토그램
정보체계	정보 위계, 통합 사인, 지도, 다국어, 장소 콘텐츠	방향·관광·문화재 안내, 통합 웨이파인딩
표현 조절	상징·색채·패턴의 적용 범위와 권장·지양 기준	로고·고채도·장식 패턴의 과잉 사용 제한

지역자원의 디자인 표현은 직접적 표현과 맥락적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표현은 지역의 상징이나 자연형태를 모티브로 적용하거나 대표색·서체·브랜드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맥락적 표현은 특정 형상을 드러내기보다 지역의 지형, 경관, 재료, 이용 행태 및 생활 조건에 적합한 형태와 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석에는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적 표현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도시의 위험 환경을 안전시설과 대피 정보로 전환하거나, 고령인구의 특성을 인지건강과 보행 환경의 기준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사회적·산업적 조건이 디자인 기능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안전성과 접근성 그 자체는 공공디자인의 보편적 품질기준이므로, 구체적인 지역 조건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역 정체성 표현으로 판정해야 한다.

2-3-2.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표현 특성

공공시설물은 공공공간과 가로 환경을 구성하며 이

용자와 직접적인 물리적 관계를 형성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공공시설물은 도시경관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이용자의 기능적·심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디자인 영역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표준형 디자인과 우수 공공디자인 인장은 시설물의 기본 품질과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동일한 시설물의 반복적 적용은 지역과 장소의 차이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가진다.¹⁸⁾

공공시설물에서 지역 정체성은 형태적 상징 외에도 지형과 장소에 적합한 설치배치, 지역 재료와 경관 색채, 이용자의 생활 조건에 대응하는 기능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시설물은 장기간 설치되고 안전성·내구성·유지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역 모티브의 시각적 강조보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사용 적합성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공공시각매체는 위치·방향시설 이용 및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정보환경이다. 지역색, 전용 서체, 브랜드, 그래픽, 픽토그램 및 지역 서사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식별성을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동시에 가독성, 정보 위계, 표준 픽토그램, 다국어 및 접근성과 같은 보편적 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시각매체의 지역 정체성은 보편적인 정보 전달, 광역 차원의 지역 식별, 개별 장소의 콘텐츠가 위계적으로 결합할 때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공식 시각 자산이 정보 전달보다 우선하면 가독성과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표준 정보만 적용하면 지역 간 차이가 약화될 수 있다.

지역 정체성의 표현에는 상징 요소를 추가하는 기준과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함께 포함된다. 지역색·브랜드·모티브를 권장하면서 로고, 캐릭터, 고채도 색채, 슈퍼그래픽 및 장식 패턴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은 지역 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장소 맥락과 정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체성의 표현 범위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관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진흥계획의 핵심 지역자원이 가이드라인의 색채·재료·그래픽으로 직접 이어질 수도 있고, 지형·경관에 따른 장소별 기준이나 대상지의 특성을 검

18)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정책과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1, No.1, 2012, pp.133-147;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및 특성 비교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4, 2010, pp.532-542.

토하는 심의 항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방식에 우위를 부여하지 않고, 지역자원의 성격과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비교한다.

2-4.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지역 정체성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지역 자원의 분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 장소 정체성의 디자인 전환, 광역과 기초 계획의 관계 및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 비교로 구분할 수 있다(표 5).

[표 5]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과 본 연구와의 관계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와의 관계 및 한계
최성호(2010)	지자체 가이드라인의 영역·규정 항목 비교, 도시 이미지·경관 권역·정량 기준의 필요성 제시	가이드라인 비교의 공통 틀을 제공하나 지역 자원의 선택과 디자인 전환은 다루지 않음
김영근·김아람(2010)	5개 지자체의 공공공간 시설물·매체 분류와 구성요소 비교	대상과 용어의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정체성의 내용은 분석하지 않음
전미화·이찬(2011)	장소 정체성을 물리적 환경·활동·의미·공간 맥락으로 구조화하고 가이드라인 위계 제시	지역자원에서 디자인 요소로 이어지는 근거를 제공하나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자료 비교는 수행하지 않음
최성호(2011)	상위 계획과 도시 특성이 의정부시 가이드라인 목표와 구성에 반영되는 과정 분석	계획·가이드라인의 연결을 보여주나 단일 기초자치단체 사례임
장영호(2012)	서울 공공시설물의 표준형 디자인, 인증 및 관리 운영 문제 분석	시설물의 표준화·지역성·실행 체계 관계를 제시하나 단일 도시 연구임
송영민(2014)	충북광역도시권의 경관·공공디자인·색채계획 간 통합 체계 분석	광역과 기초의 정합성을 다루나 하나의 광역권에 한정됨
김미영·이호승(2016)	역사, 예술·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생활의 지역자원 분류 체계 개발	지역자원 분석틀을 제공하나 디자인 표현으로의 전환은 다루지 않음
문은배(2019)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이미지·의식조사 방법 제시	지역자원의 조사 범주를 제공하나 실제 광역계획 간 지역별 차이는 분석하지 않음
이중성·박재홍(2024)	16개 광역지자체 가이드라인의 수립 목적·지향점·유형별 분류 및 농산어촌 관련 내용 비교	광역 비교라는 점은 유사하나 지역자원의 구체성과 진흥계획과의 연계는 다루지 않음
Oktay(2017)	자연·사회문화 환경·구역·공공공간을 도시 정체성 요소로 제시	도시 정체성의 다차원성을 설명하지만 정책 문서 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Alesailly·Albialy(2025)	1969-2024년 도시 정체성 연구의 계량·지학적 구조와 연구과제 도출	개념 분류의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공공디자인 적용 기준은 분석하지 않음
-------------------------	--	--

선행연구는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의 분류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영역·항목에 관한 분석을 각각 축적해 왔다. 지역자원 연구는 무엇을 조사하고 대표 자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며, 가이드라인 연구는 공공공간·시설물·시각·매체의 분류와 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항목의 구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두 연구 계열 사이에는 지역자원이 구체적인 디자인 기준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수 지역에 걸쳐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다.

장소 정체성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지역자원과 조형 요소 사이의 연결을 제시하였으나 단일 대상지의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시 특성과 가이드라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되어 광역자치단체 간 공통 경향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연구는 지역 정체성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지향점임을 확인하였지만, 정체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자원의 내용과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에서의 표현 방식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계획인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함께 비교하여 계획에서 선택한 지역자원이 디자인 기준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검토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바탕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진흥계획에서 지역자원의 선택·강조·조합과 사업화를 비교하고, 세부 디자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의 가이드라인에서 장소·형태·재료·색채·시각 정보 및 표현 조절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정체성이 계획의 언어에서 실제 디자인 기준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3.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지역 정체성 반영 특성

3-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앞서 선정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의 강조와 계획 내 활용 방

식을 비교하였다. 분석 범주는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네 유형과 공식 시각 자산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자원이 현황 진단, 비전·목표, 추진 전략 및 실행 사업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안전·편의·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보편적 공공 가치는 구체적 지역 조건과 결합한 경우에 한해 지역 정체성 관련 내용으로 해석하였다(표 6).

[표 6] 진흥계획의 지역 정체성 분석 항목

분석 범주	세부 항목	분석 내용
지역자원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생활·공동체	지역 정체성의 근거로 활용된 자원
공식 시각 자산	심벌, 브랜드, 대표색, 문양, 전용 서체 등	지역 정체성의 공식 시각 요소로의 구체화
계획 반영 단계	현황 진단, 비전·목표, 추진 전략, 실행 사업	지역자원이 계획의 어느 부분까지 반영되는지 확인
비교기준	자원의 강조와 조합, 사업화, 공간 단위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지역자원이 현황 진단에 머무는지, 비전·목표·추진 전략 및 실행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되, 이를 별도의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지 않았다. 안전·편의·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보편적 공공 가치는 지역의 산업·지형·인구 및 생활 조건과 구체적으로 연결된 경우에 한해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3-2. 지역자원의 공통성과 차별적 강조

지역자원 유형의 포함 여부를 비교한 결과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가 대부분의 진흥계획에 공통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한 포함 빈도는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하지 않았다. 각 자원의 상대적 강조, 다른 자원과의 결합, 계획 내 반영 단계 및 실행 사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7).

[표 7] 지역 정체성 관련 자원의 공통성과 차별화 지점

구분	공통 특성	지역별 차이
역사·문화	문화유산·역사·지역 서사의 폭넓은 활용	특정 장소·인물의 선택, 역사 공간·콘텐츠 사업과의 연결
자연·환경	산림·수변·해안·생태환경의 활용	지형의 중요도, 권역 구분, 생활·관광환경과의 연결
산업·경제	산업·관광·상권 활성화와의 연계	기존 산업 이미지의 재해석과 지역경제의 결합 방식

생활·공동체	안전·편의·포용·주민 참여의 강조	지역의 인구·산업·생활 문제와 결합하는 방식
공식 시각 자산	일부 지역에서 색채·브랜드·서체 등을 적극 활용	독립적 사업화, 적용 범위 및 다른 지역자원과의 관계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은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부산은 해양·원도심·도심·산업지역 등 서로 다른 도시환경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북항·남항과 해운대·광안리·송정 등과 같은 장소별 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경북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연경관을 공공디자인 발전 방향의 근거로 설정하고, 이를 계획 수립 당시 23개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광역계획으로 제시한다.

생활·공동체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언급하는 정도보다 해당 가치가 구체적인 지역문제와 연결되는 방식이 중요하였다. 울산은 해안을 중심으로 화학업종과 산업시설이 집중된 조건을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의 문제와 직접 연결하고, 산업 유형별 안전 지침과 환경개선 사업을 제시한다. 이처럼 보편적인 공공 가치가 지역의 산업구조·지형·인구특성과 결합할 때 지역 정체성의 일부로 기능하였다.

공식 시각 자산도 지역별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대구는 지역별 시범색 등을 진흥 과제에 포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의 색채 기준과 연결하였다. 울산은 외솔 최현배와 한글문화 자원을 전용 서체 개발 및 공공문서·공공시설물 활용 사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공식 시각 자산의 지역별 차이는 요소의 개수 자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지역자원과의 연관성, 적용 대상, 지속적인 활용 체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역자원 유형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지역 정체성의 차이가 자원 분류 자체에서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핵심 자원의 선택과 강조, 자원 간 결합 및 구체적인 지역문제와의 관계가 지역별 차이를 형성하였다.

3-3. 지역별 지역자원 활용 특성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지역자원과 진흥계획에서의 활용 방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8]와 같다.

인천은 하나의 광역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지역 정체성을 구분하는 방식이 뚜렷하다. 원도심과 신도시, 항만과 자연 해안, 문화 자산과 시민 생활을 함께 다루고, 공공공간·시설물·안내 체계 및 브랜드를 연계 대상

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광역 차원의 통합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하위 지역의 개별적인 형성 과정과 장소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를 산업안전·근로환경·산업 유산과 연결하고 태화강 및 한글문화를 생태·문화적 자원으로 추가한다. 산업 시설을 지역의 부정적인 경관 요소로만 다루지 않고, 지역의 역사와 생활 조건을 반영하는 공공디자인 자원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종은 계획도시라는 형성 과정과 한글문화를 주요 특성으로 활용한다. 진흥계획은 도시 활력, 문화한글, 생활안전 및 시민 행복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며, 이 가운데 문화한글은 가이드라인의 별도 실천 지침으로 이어진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하는 방식보다 사군 간 차이를 조정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경기·강원·충남·전북·경남은 광역 차원의 공통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거나 구체화하도록 구성한다. 이 방식은 하위 지역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으나, 광역계획의 지역 정체성이 포괄적인 행정 방향으로만 남을 가능성도 가진다.

분석 자료에서는 자연·역사 문화 자원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연결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합은 지역자원의 정책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지만,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가 강조될 경우 주민의 일상적 기억과 생활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뤄질 여지도 있다.

[표 8]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자원의 강조와 활용 특성

지역	강조된 지역자원·특성	주요 활용 방식	특징적 적용
서울	시민 생활·공동체, 역사 문화 환경	생활환경과 도시 공간 사업	생활안전·편의, 커뮤니티, 역사 문화 주변 공간
부산	해양·수변·산지·산복도로·원도심	권역·장소별 차등화	수변, 경사지, 원도심 관련 사업
대구	역사 문화·골목 도시 시각 자산	장소 사업과 시각 자산 사업 병행	역사 문화 장소, 시범색, 안내 체계
인천	개항·항만·도시·산업·국제 관문	군·구별 차등화	원도심·신도시·도시·산업 지역별 전략
대전	하천·교통·생활환경	생활·품격·안전·소통 중심	친수공간, 교통, 안전 및 정보환경
울산	산업·태화강·자연·한글문화	기존 산업적 이미지의 확장	산업안전, 산업 유산, 태화강, 전용 서체

세종	계획도시·한글문화·생활환경	핵심 도시 별 사업화	주제 도시 활력·문화한글·생활안전·시민 행복
경기	31개 사군의 생활산업·공간 차이	지역 여건별 선택형 사업	사군 공모·지원 및 지역 맞춤 사업
강원	18개 사군의 다양성·생활 여건	다주제 사업과 지역 확산	안전·사회 변화·문화·강원특화 사업
충북	국토 중심성·도시 생활권	사람 중심 방향과 사·군 지원	행정 자원·교육 협력체계
충남	안전·사람·생태·관광·문화역사	지역 가치별 사업 구성	산업단지·생태·관광·역사 문화 사업
전북	생태·역사 문화·생태·환경미래 대응	주요 방향과 사·군 사업 연계	역사 문화·생태·생태·환경·스마트 사업
경북	역사 문화·동해·산악·수변환경	장소·문화·자연 자원의 사업화	역사 문화·자연·환경·농어촌 생활환경
경남	고유 특성·자연·가치·지역경제·시민참여	권역 차이와 광역·공통 방향 병행	자연·경제·생활 참여 사업
제주	화산섬의 자연·경관·생활 문화	자연환경과 공공·환경 품질관리	자연·경관·시설물·생활환경

3-4. 지역 정체성 반영의 종합적 특성

진흥계획에서 나타난 지역별 차이는 네 가지 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 9]).

첫째, 지역 정체성은 핵심 자원의 선택적 강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역사·생활 자원을 함께 다루지만 부산에서는 지형과 해양환경, 울산에서는 산업, 세종에서는 한글문화와 계획도시의 형성과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각되었다.

[표 9] 진흥계획에서 나타난 지역 정체성의 차별화 지점

비교 지점	주요 차이	대표적 양상
핵심 자원의 선택	여러 자원 중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자원	부산의 지형, 울산의 산업, 세종의 한글·계획도시
자원의 조합	기존 자원과 새롭게 결합하는 가치	산업+안전·문화, 자연+생활·관광
공간 단위	광역 전체와 하위 지역의 구분 방식	인천 군·구, 도 단위 사·군, 부산 권역
실행 사업과의 연결	지역자원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정도	산업안전, 역사 문화 공간, 전용 서체 등

둘째, 기존에 형성된 지역 이미지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이 확인되었다.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를 안전·생태·문화와 연결하고, 대전은 도시 이미지를 생활·

품격·안전·소통의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특정 산업이나 관광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될 경우 주민의 다양한 생활 문화와 장소 서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광역 차원의 통합성과 하위 지역의 다양성 사이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인천은 군구별 특성을 구분하고, 여러 도 단위 지역은 사·군별 여건과 사업 선택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광역 수준의 공통 방향과 기초자치단체·생활권의 구체적인 장소 자원을 서로 다른 범위에서 다루는 구조로 이어진다.

넷째, 안전·편의·포용과 같은 공공 가치와 지역 정체성의 경계가 일부 계획에서 명확하지 않았다. 이들 가치는 공공디자인의 필수적인 품질 요건이다.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는 해당 가치가 지역의 산업구조, 지형, 인구구성 및 생활 문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종합하면, 진흥계획의 지역 정체성은 핵심 자원의 선택, 자원 간 조합, 공간적 적용 단위 및 실행 사업과의 연결에서 구체적인 차이를 보였다.

4. 광역자치단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지역 정체성 표현 특성

4-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가이드라인 분석은 진흥계획에서 확인한 지역 정체성이 실제 설계 및 적용 기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가이드라인 분석은 별도로 발간된 종합 가이드라인 7건과 진흥계획 내부에 독립된 장으로 수록된 지침 3건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과 충남은 목차상 가이드라인 장이 확인되지만 확보본에서 세부 지침 전체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서울과 울산은 공공시각매체에 관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공시설물 분석에만 포함하였다. 이에 공공시설물은 10개 지역, 공공시각매체는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배치, 형태·구조, 재료·마감, 색채, 그래픽·서체·픽토그램 및 정보체계의 표현 방식을 비교하였다.

4-2. 지역별 디자인 표현 특성

10개 지역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은 지역 정체성의 주요한 표현 수단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표 10]).

[표 10] 지역별 지역 정체성의 주요 디자인 표현

지역	표현의 중심	주요 디자인 기준	검토 사항
서울	표준화·맥락조화	표준 시설물, 간결한 형태, 서울색, 주변 경관	장소별 역사·생활 문화 표현의 제한 가능성
부산	지형·장소 특화와 시각 체계	특화 지역별 기준, 부산색·서체	광역 일관성과 장소별 다양성의 조정
대구	색채·그래픽의 체계화	대구색 체계 강조·색 비율, 지역 그래픽	공동 시각 체계의 획일적 확대 가능성
인천	브랜드·권역·정보의 통합	인천색, 브랜드·상징 아이콘, 지역자원 그래픽	다수 식별 요소 사이의 위계 필요
울산	경관 유형별 색채·재료	경관별 색채 팔레트, 재료 계획, 시설물 통합	진흥계획의 일부 지역자원이 세부 디자인 기준에 반영
세종	한글문화 실천 지침	문화한글을 별도 실천 범주로 구성	상위 주체와 생활권 다양성의 조정
경기	대상지별 지역 맞춤 기준	지역 특성에 따른 형태·색채·재료 배치	사업별 판단의 구체성과 일관성 확보
충북	고령화·생활문제 대응	공동·세부 인·지·건·강, 시설물 체크리스트	보편적 복지 기준과 지역 특성의 구분
대전	진흥 방향과 설계 항목의 연결	4대 방향, 형태·배치·재료·색채·정보 기준	지역 고유 자원의 구체적 표현 보완
제주	자연환경·지역 색·재료	자연 모티브, 제주 색, 지역 재료, 장소별 색채	직접적 모티브와 상징의 과잉 방지

주: 서울·울산은 확보된 세부 기준의 범위에 따라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대구·인천·제주는 지역 정체성을 색채와 그래픽 등 구체적인 시각 요소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구는 자연·인공·인문환경에서 도출한 색채를 ‘어울림 200색, 자랑 50색, 으뜸 10색’으로 체계화하고, 공공시설물의 강조색 적용 비율과 지역 랜드마크 그래픽의 표현 방법까지 제시한다. 인천은 권역별 색채 팔레트와 브랜드·상징 아이콘·표준디자인을 연계하고, 색채의 적용 범위와 배색 방식을 제시한다.

제주는 자연환경과 디자인 요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해안·바다·섬·바람·오름·곶자왓·습지·돌 등을 가로·시설물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재료와 내구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도심·중산간·해안 지역에 서로 다른 주제색을 설정하여 장소별 색채 차이도 제시한다. 동시에 과장된 패턴과 지역 상징의 남용을 제한하므로, 자연 자원의 활용과 표현의 절제가 함께 요구된다.

부산·울산·서울·경기는 직접적인 지역 상징의 반복을

줄이고 장소와 주변 환경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부산은 일반 시설물의 과도한 지역 상징, 다양한 패턴 및 자극적인 고채도 색채를 제한하고, 문화재·역사 자원·해양관광지 주변에서는 해당 자원과 조화되는 재료와 패턴을 적용하도록 한다. 공공시각매체에서는 부산색과 서체를 통일하여 광역적 식별성을 확보한다.

울산은 도심·산업, 해안, 농어촌, 산악 등 경관 유형에 따라 색채와 재료를 구분하고, 공공시설물의 기본 방향을 안전·편리·조화로 설정한다. 서울은 표준화된 시설물의 우선 적용, 도시경관과의 맥락성, 친환경 재료 및 서울색 활용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지역별 이용 형태·교통 여건·공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맞춤’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면서 직접적인 지역 상징과 과도한 그래픽을 제한한다.

이러한 맥락 중심 접근은 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다만 ‘주변과의 조화’ 또는 ‘지역 특성 반영’과 같이 포괄적인 기준만 제시된 경우에는 적용 결과가 디자이너와 심의자의 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자원 조사와 형태·재료·색채로의 전환 절차가 구체화될수록 판단 기준의 일관성도 높아질 수 있다.

세종·충북·대전은 문화적 주제 또는 생활 조건을 별도의 실천 기준과 연결한다. 세종은 일반 사용 지침과 별도로 도시 활력·문화한글·생활안전·시민 행복의 실천 지침을 구성한다. 충북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지건강 디자인까지 다루며 공공시설물 지침을 형태·구조, 배치, 재질·색채 및 그래픽 항목의 체크리스트와 연결한다.

대전은 생활·품격·안전·소통의 네 방향을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세부적 디자인 항목에 연결한다. 공공시설물에서는 공간·위치의 특성, 재료·색채 및 유지관리를, 공공시각매체에서는 정보 전달, 가독성, 정보 위계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주요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구조에서는 진흥계획과 지침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생활·품격·안전·소통은 여러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이므로 대전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장소·문화자원과의 연결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4-3.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표현 차이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는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표 11]).

[표 11]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의 지역 정체성 표현 차이

구분	주요 표현요소	지역 정체성의 주요 표현	검토할 쟁점
공공시설물	장소배치, 형태, 재료, 색채, 기능	지형·경관·이용 환경에 따른 차등 적용	보편적인 품질 기준과 지역 특화 기준의 구분
공공시각매체	색채, 서체, 그래픽, 픽토그램, 정보	지역색·브랜드·지역콘텐츠를 통한 식별	가독성과 지역 식별성의 균형

주: 공공시각매체는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대전·세주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공공시설물에서는 지역 정체성이 표면적인 상징형태보다 장소·지형·경관·재료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다. 부산의 지형·특화 지역별 기준, 울산의 경관 유형별 색채·재료, 경기도의 대상지별 판단 기준, 제주의 자연 지형과 지역 재료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제주 가이드라인은 공원 조성 시 기존 지형과 한라산·오름·해안의 조망을 고려하고, 지역의 소재와 향토수종을 활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 조화’, ‘간결한 형태’, ‘저채도 색채와 같은 지침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는 일반적인 디자인 원칙이다. 특정 지형·문화·산업·생활 조건이 배치·형태·재료·색채의 선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해야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공공시각매체에서는 지역색, 전용 서체, 브랜드, 그래픽, 픽토그램 및 장소 콘텐츠가 직접적인 식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부산은 부산색과 서체의 통일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지시체 심벌과 임의로 변형된 색채·서체를 제한한다. 인천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그래픽·색채 및 다국어 적용하며, 제주 국제표준 픽토그램과 다국어표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주색의 사용을 별도로 규정한다.

공공시각매체의 본래 기능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지역색과 상징 요소의 적용이 가독성·시인성·정보 위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강조 정도를 관리해야 한다. 보편적인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식별 요소와 장소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구조가 적절하다.

공공시설물은 장소의 물리적 조건과 이용 환경을 체현하고, 공공시각매체는 지역과 장소의 의미를 식별·전달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담당한다. 두 영역은 공통의 지역 정체성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연계 및 간극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검토한 결과, 계획에서 강조한 지역 정체성이 디자인 기준으로 이어지는 방식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표 12). 대구·인천·제주는 진흥계획에서 강조한 지역성을 지역색·브랜드·그래픽·자연 모티브 등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결하고 있어 계획과 가이드라인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강조색의 비율, 적용 대상 및 상징 요소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도 제시되어 시각 요소의 적용 강도를 함께 조절하고 있었다.

부산과 울산에서는 지형과 경관의 차이가 시설물의 배치, 재료 및 색채 기준으로 연결되었다. 이들 지역의 정체성은 하나의 대표 이미지보다 장소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통해 표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 간 차이는 ‘경관 조화’와 같은 공통적 표현 자체보다 구체적인 경관 유형이 배치·재료·색채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세종·충북·대전은 문화적 주제와 생활 조건을 별도의 실천 기준과 연결하였다. 세종의 한글문화와 같이 지역 고유성이 직접 드러나는 경우와 고령화·안전·편의처럼 여러 지역에서 공유될 수 있는 가치가 함께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지역 정체성은 해당 가치가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조건에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서울과 경기는 지역 정체성을 고정된 색채나 형태로 제시하는 정도가 낮고, 주변 환경과 대상지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 경우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연계는 특정 모티브의 반복보다 장소별 판단 절차를 통해 나타났으며, 지역자원의 조사와 변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연계는 동일한 지역 상징의 반복 정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진흥계획에서 선택한 지역자원이 장소·형태·재료·색채·정보 등의 디자인 요소로 직접 전환되는 경우와 장소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함께 나타났으며, 그 방식은 지역자원의 성격과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표 12]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연계 양상

연계 양상	주요 지역	특징	검토 사항	대표 근거
시각 요소로 직접 접	대구·인천·제주	지역색·브랜드·그래픽·자연 모티브 기준	시각적 과잉과 과도한 표준화	대구·진흥계획(2019) p.106 / 가이드라인(2019) pp.213-214 / 인천·진흥

연계	으로 연계	방지	계획(2022) pp.210-211; 가이드라인(2022) pp.240-241 / 제주·진흥계획(2017) p.14; 진흥계획 내 가이드라인(2017) pp.71-72
장소·경관 기준으로 연계	부산·울산	지형·경관이 배치·재료·색채 기준으로 연계	일반적인 조화 기준과 지역 특화 기준의 구분 부산·진흥계획(2020) p.16; 가이드라인(2023) p.32 / 울산·진흥계획(2021) p.76; 가이드라인(2021) pp.43-44
특정 주제·생활 조건을 지칭화	세종·충북·대전	문화·고령화·생활안전 등의 방향을 실천 지침에 연결	서종·진흥계획(2025) p.148; 적용지침(2025) p.329 / 충북·진흥계획(2021) p.420; 진흥계획 내 가이드라인(2021) pp.386-387, 413 / 대전·진흥계획(2022) pp.92-93; 진흥계획 내 지침(2022) pp.160-161
대상지별 판단 기준으로 연계	서울·경기	고정된 모티브 대신 주변 환경·대상지 특성에 따른 판단	기준의 구체성과 적용의 일관성 확보 서울·기본계획(2019) pp.7-11; 가이드라인(2020) pp.40-49 / 경기·진흥계획(2026) p.51; 가이드라인(2026) pp.6-7

주: 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연계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양상에만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 결론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이 어떠한 지역자원을 통해 설정되고, 이러한 지역 정체성이 가이드라인에서 어떠한 디자인 기준으로 표현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지역자원을 분석하였다. 별도 가이드라인과 진흥계획 내부의 독립된 지침을 포함하여 세부 디자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소·배치, 형태·구조, 재료·마감, 색채, 그래픽·서체·픽토그램, 그리고 정보체계의 표현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역사·문화, 자연·환경, 산업·경제 및 생활·공동체의 네 범주는 대부분의 진흥계획에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차이는 특정 자원의 상대적 강조, 자원 간 조합 및 실행 사업과의 연결에서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지역자원의 단순 포함 여부만으로는 지역 정체성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둘째, 지역별로 강조한 자원과 그 활용 방식은 서로

달랐다. 부산은 해양·산자수변 및 원도심이라는 공간적 조건을,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와 태화강·한글문화를, 세종은 계획도시와 한글문화를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인천은 개항 역사, 항만, 도서, 산업, 신도시와 원도심 등의 복수 특성을 군구별로 구분하였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단일한 이미지의 구축보다 서로 다른 시·군의 지역성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셋째, 가이드라인에서 지역 정체성은 색채와 브랜드 등 직접적인 시각 표현, 장소·경관에 따른 맥락적 표현, 재료와 기능을 통한 물리적 표현 및 문화·생활 주제의 실천 지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대구·인천·제주는 색채, 브랜드, 그래픽, 자연 자원을 세부 디자인 기준과 직접 연결하였다. 부산·울산은 지형, 경관, 재료의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서울·경기는 주변 환경과 대상지 특성에 따른 판단을 강조하였다. 세종·충북·대전은 문화적 주제 또는 생활 조건을 별도의 실천 기준과 연결하였다.

넷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상징과 공식 시각 자산의 활용을 권장하면서 과도한 색채·상징·패턴의 사용을 함께 제한하였다. 지역 정체성의 구현에는 시각 요소를 추가하는 과정과 표현 범위를 조절하는 과정이 병행되었다. 지역색, 로고 및 모티브의 사용량만으로 지역 정체성 반영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장소 맥락·기능·정보 전달·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는 지역 정체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공공시설물에서는 지형·장소·배치·재료 등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고, 공공시각매체에서는 지역색·서체·브랜드·그래픽 및 장소 콘텐츠가 직접적인 식별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두 영역은 동일한 지역 정체성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기능에 따라 표현 수단이 구분되었다.

여섯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연결 방식도 지역마다 달랐다. 대구·인천·제주는 계획에서 강조한 지역성을 시각 요소 및 물리적 디자인 기준으로 직접 연결하였다. 부산·울산은 장소와 경관 특성을 시설물·색채·재료 기준으로 구체화하였다. 세종·충북·대전은 특정 문화 주제와 생활 조건을 실천 지침에 반영하였고, 서울·경기는 지역 정체성을 대상 지역별 판단 기준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연계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며, 지역자원의 성격과 광역자치단체의 공간구조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구분하여 분석한 데 있다. 진흥계획에서는 지역자원의 선택과 강조, 자원 간 조합 및 실행 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정체성이 장소·형태·재료·색채·그래픽·정보체계의 기준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의 차이가 지역자원의 존재 자체를 넘어 그 자원의 선택·결합·사업화 및 디자인 표현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진흥계획에서 자연·역사·산업 등의 지역자원을 포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자원과 보조 자원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자원이 어떤 추진 전략과 실행 사업에 활용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자원과 형태·배치·재료·색채·그래픽·정보체계의 관계를 명시하고, 지역색이나 상징을 사용할 경우 적용 대상, 강조 정도, 변형 가능성 및 사용 제한 조건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안전·접근성·정보 위계·내구성 등 공통의 품질기준을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생활권은 구체적인 장소 자원과 표현 방식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 수준의 일관성과 하위 지역의 다양성을 위계적으로 구분하면 동일한 디자인의 일괄 적용을 줄이면서 지역 간 공공디자인 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공개된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내용분석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실행 정도와 시공 품질, 유지관리 상태 및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흥계획은 15개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분석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세부적 비교는 구체적인 디자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과 충남은 진흥계획에 독립된 가이드라인 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확보한 공개본에서 해당 장의 전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자료의 수립 시점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하여 수립 차수와 시점의 차이가 내용 차이에 미친 영향은 통제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최근 계획에서 특정 자원이 강조되는 경향이 시점 효과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내용분석이 연구자 단독 코딩으로 수행되어 복수 분석자 간 일치도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복수 코더를 활용한 신뢰도 검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나머지 지역의 가이드라인을 추가 확보하고,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에서 설정된 지역 정체성이 실제 공공시설물과 공공시각매체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공공디자인 심의 자료, 사업 평가 보고서 및 현장조사를 함께 활용하면 계획, 세부 디자인 기준 및 실제 도시환경 사이의 연계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5.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6.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6.
- 경상남도, 『2020-2025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2020.
-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요약보고서』, 2021.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19.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9.
- 대전광역시, 『2030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2.
- 부산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0.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 서울특별시, 『2019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2019.
- 서울특별시,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2020.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5-2029』, 2025.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적용지침(가이드라인) 2025-2029』, 2025.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1.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1.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2022.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2.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2017.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19.
- 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1.
-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1976.
- 김미영, 이호송, ‘공공디자인에서의 지역정체성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분류체계개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5, No.3, 2016.
- 김정근, 김아람,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23, No.5, 2010.
- 노주현, 임현혁, ‘한국 6대 광역시의 도시브랜드에 함의된 조형요소와 정체성 연구’,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1, No.5, 2013.
- 문은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위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조형미디어학, Vol.22, No.1, 2019.
- 송영민, ‘지역정체성 맥락의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연구 - 충북광역시권의 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3, No.5, 2014.
- 이종성, 박재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 통한 지자체별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 연구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Vol.25, No.1, 2024.
30. 이충훈, 'CI(City Identity)에 의한 도시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2002.
31.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물 정책과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Vol.11, No.1, 2012.
32. 전미화, 이찬, '공공공간의 장소정체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방안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20, No.4, 2011.
33.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및 특성 비교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6, No.4, 2010.
34. 최성호, '도시특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7, No.4, 2011.
35. Zaker Alesaily, Ahmed Albialy, 'Urban Identity: A Bibliometric Review, 1969-2024', Alexandria Engineering Journal, Vol.128, 2025.
36. Deniz Oktay, 'Reevaluating Urban Identity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The Case of Samsun, Turkey',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Urban Design and Planning, Vol.170, No.5, 2017.
37. Steve Stemler, 'An Overview of Content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Vol.7, No.17, 2001.
38. Marilyn Domas White, Emily E. Marsh, 'Content Analysis: A Flexible Methodology', Library Trends, Vol.55, No.1, 2006.
3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1.), www.law.go.kr.